

# “벌써 슬프다” ‘채비’, 눈물장전 아름다운 이별



을 가을 관객들을 눈물로 적실 또 한 편의 따뜻한 영화가 온다.

고두심 · 김성균 · 박철민 · 김희정 등 출연 화제

## 조금 특별한 母子 이별 준비, 웃음 · 감동 전달

‘채비’는 30년 내공의 프로 사고 봉지 인규를 24시간 케어하는 프로 잔소리꾼 엄마 애순 씨가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홀로 남을 아들을 위해 특별한 체크 리스트를 채워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7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선언한 고두심과 충무로의 핫한 배우 김성균, 그리고 박철민, 김희정의 참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조금 특별한 모자(母子)의 분주한 이별 준비를 따뜻한 시선과 유쾌한 톤으로 그려내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한다.

조영준 감독은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엄마 엄마’하고 아파하셨다”며 “엄마가 ‘엄마엄마’하고 우는 걸 보고 저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고두심은 세상 헤黠은 아들 인규의 뒤치다끼리를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억척 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엄마 애순, 김성균은 지적 장애

를 가진 아들 인규로 분해 따뜻한 호흡을 맞췄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하게 된 고두심은 “오랜만의 영화화 많이 떨린다. 요즘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떨린다”며 “우리 작품은 보편, 타당성이 있다. 누구나 넘나드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영화다”고 말했다.

이어 “극중 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인데 그 아들을 두고 엄마인 내가 먼저 떠나야 입장이다. 올곧은 자식이었으면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쉬면서 갈 수 있을텐데 부족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간다는 것이 어떤 부모도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체찍질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입장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채비’는 무엇보다 엄마 고두심과 아들 김성균의 케미가 빛날 작품. 이전부터 김성균은 눈여겨 봐 왔다는 고두심은 “사실 김성균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훈남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몸에서 그런 (잘생김이) 풍겨져 나오더라”고 진심을 표했다.

또 “드라마(‘등답하리’ 시리즈)에서도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이 나이에도 잘 해내는 걸 봤다. 연인 관계 역할까지 해내는 것을 보는데 그 분 위기가 너무 좋았다. 순수한, 때 묻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속에서 끄집어 내는 걸 보고 웬്ണ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아들로 하게 됐다고 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두심은 현장에서도 모두의 ‘엄마’였다.

김성균은 “고두심 선배님은 진짜 엄마 같았다. 현장 스태프들 모두에게 엄마같은 존재였다”며 “무엇보다 선배님은 모두가 배고픈 모습을 못 보신다. 항상 입에 음식을 넣어주셨다”고 귀띔했다.

고두심과 드라마 ‘우리 갑순이’를 함께했던 유선은 “고두심 엄마와 드라마도 8개월 간 함께했는데 각종 떡과 과일, 지역 특산품이 올라온다”고 전했고, 박철민 역시 “고두심 선배님의 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했다. 얼마나 둘이 많은지, 음식이 남아도는지 궁금했다. 늘 회식 자리도 만들어줬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는 영화 스틸 중 고두심의 장례식 장면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인규(김성균 분)과 울고

있는 딸 문경(유선 분)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유선은 “나는 엄마와 각별한 시간이 없던 딸 역이다. 현실 속에서 너무 부담없는 배우들의 유머 때문에 힘들었다. 혼자 애써 몰입하는 나 혼자와의 씨름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성균은 “인규가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다. 엄마가 항상 밝게 살아라라고 하셔서 엄마가 돌아가셔도 웃는다”며 애틋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고두심은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희생부활자’ 김해숙 등 최근 충무로를 활출고 있는 중년 여배우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두심이 그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고두심은 “코미하면서도 진지한 ‘아이 캔 스피크’는 나문희 선배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다. 김해숙 영화는 아직 봤지만 정말 연기를 잘 하는 후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엄마의 배우들이 현직에서 밀리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다. 경쟁자들이 많으면 더 신이 난다. 우리 것이 안되면 알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보기만 해도 슬프고 보기만 해도 따뜻한 고두심과 김성균의 아름다운 이별이 담긴 눈물 장전 프로젝트 ‘채비’는 11월 9일 개봉한다.

## ‘이번 생X변혁X반지하’, 노오력 세대 드라마 뜨는 이유



청춘들의 ‘아픈’ 현실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되며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14일 첫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변혁의 사랑’은 오늘 날 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그려내 웃픈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19일 오전 11시 첫 공개되는 스튜디오 온스타일의 디지털 드라마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가 합류, 청춘들의 현실 공감 드라마 라인업을 완성시키며 시청자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전할 전망이다.

# 그리스 여신들의 생활밀착 내풀풀 판타지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

19일 오전 11시 첫 공개되는 스튜디오 온스타일의 디지털 드라마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기획 김기윤, 국본 이랑 황국영, 연출 이랑

김기윤)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네 명의 그리스 여신들이 정체를 숨기고 서울 망원동 반지하에 살면서 벌어지는 짠내 풀풀 판타지를 그린다.

히연수(이리스 역), 소진(메티스 역), 차정원(페이토 역), 해령(오이지스 역)이 4인 4색 여신으로 변신한다. 이들은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는 거족적 목표를 갖고 한국에 왔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텔레마케터 등 생업전선에 뛰어들며 서울 삶이의 만만치 않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네 명의 여신들이 하늘에서 반지하로 떨어져 현실적으로 보여줄 짠내나는 생활밀착형 코미디가 기대를 모은다. 19일 오전 11시 디지털 첫공개.

# 하우스푸어와 홈리스의 수지타산 로맨스 ‘이번 생은 처음이라’

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

## 상 순수한 것들의 노오력 ‘변혁의 사랑’

tvN 토일드라마 ‘변혁의 사랑’(극본 주현, 연출 송현우 이종재)은 백수로 신분 하락한 생활력 제로의 재벌3세 최시원(변혁 역)과 고학력 · 고스펙의 생계형 프리터족 강소라(백준 역), 그리고 금수저를 꿈꾸는 엘리트 공명(권재훈 역) 세 청춘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코미 반란극이다.

지난 방송에서 프로 알바걸 백준역을 맡은 강소라는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상황에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물렸을 때 오히려 ‘김’인 고객에게 사이다 일침으로 통쾌함을 줬다. 잘못된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청년들에게 노오력만 강요하는 세상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도전기로 기성세대의 선입견과 통념을 비틀며 속 시원한 웃음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9시 tvN 방송.

청춘들의 아픈 현실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방송계 관계자는 “그변한 현대 사회에서 청춘 자신들은 물론, 삶의 무게를 짊어진 기성세대들도 청춘들의 짠내나는 현실과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와 슬픈 단면이지만 어둡게만 조명하는 것이 아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힘든 현실에도 웃음을 전하는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차트 4주 연속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에 4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17일(현지 시각)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뉘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5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주 해당 차트 35위에서 20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하며 빌보드 메인차트에서 역주행 신화를 썼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을 미국 아마존, 타깃(Target), 베스트 바이, 월마트 등 현지 온 ·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공식 판매했다.

소속사 측은 “미국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앨범 판매 집계가 최근 차트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싱글와이프, 야심찬 포문→유종의 미



숙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방송 후 남편들은 그동안 몰랐던 아내들의 모습을, 아내들은 ‘아내DAY’를 통해 육아와 일에 치여 살던 일상의 해방을 누리며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청률과 화제성에서도 시즌2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볼 법한 수치를 보였다. 첫 회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 10%에 육박했던 ‘싱글와이프’는 방송 내내 안정적인 시청률로 고정 팬층을 확보했고, 실시간 검색어와 화제성 지수에서 상위에 랭크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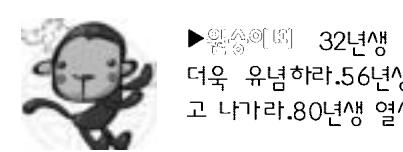
‘싱글와이프’는 아내들이 가장 의 올타리에서 벗어나 낭만적인 일탈을 꿈꾸고 남편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싱글와이프 시즌1’이 시기와 맞물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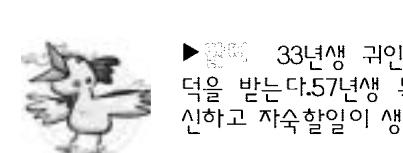
지난 6월 21일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인 SBS 예능프로그램 ‘싱글와이프’는 지난 8월 2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싱글와이프’는 아내들이 가장 의 올타리에서 벗어나 낭만적인 일탈을 꿈꾸고 남편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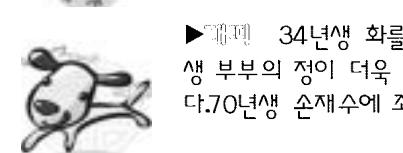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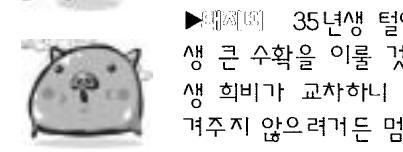
▶ 36년생 긍정적으로 .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맏이하라. 49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3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8년생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